한국군 해외배병 관련 국내 기록의 현황과 기록관리 실태

Current State of Domestic Records and Record Management Related to Dispatch of ROK Armed Forces

유정아 (Jeong A You)*
임진희 (Jin Hee Yim)**

초 록

한국군의 해외배병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유지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안보를 더욱 균형하게 하며, 긴밀적으로는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등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당대의 사건이다 하겠지만, 관련 기록들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배병업무가 진행되는 동안 생성되는 각종 기록들은 다양한 관련 기관으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개별 기록물들에 대한 검색이나 접근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해외배병과 관련된 일련의 기록들을 관리체계화하는 작업은 더욱이 어렵다. 또한 해외배병과 관련된 기록들은 대부분 공개적 프레임의 차원에서 작성된 기록물만을 이관해 상으로 하고 있어 일상 아카이브 측면에서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군 해외배병과 관련된 기록의 현황을 파병절차, 관련 기관 및 파병부대별로 정리하고, 기록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Dispatch of ROK Armed Forces is a significant contemporary event that enhances the ROKs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and ensures the solid national security by contributing international peace keeping operations. Indirectly, dispatch of armed forces also can contribute to strengthen the national defense. However, despite its importance, record management related to the dispatch is not done properly. Because variable records produced in the process of dispatching troops are transferred to distributed archives, searching or accessing each record is not easy and making a collection from a series of record related to certain dispatch is more difficult. Moreover, since most transferred records were produced in the public domain,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record in the aspect of archive of everyday life is needed. In this paper, we summarize the current state of domestic records by dispatch procedure, organization, and dispatched troops. And we also explore the problem of record management.

키워드: 해외배병, 기록관리, 기록화전략
	dispatch of armed forces, records management, documentation strategy

* 평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sjjayoo@gmail.com) (제1저자)
** 평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부교수(yimjhrk@mu.ac.kr) (조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16년 8월 22일, 법고심사일자: 2016년 9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9월 12일
1. 들어가는 말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곽천홍은 자신의 저서 '한국 국가기록의 이론과 실제'에서 역사에 대한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고 말하며, 공공기관의 기록을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부실한 기록관리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곽천홍, 2003). 그리고 얼마 후 한 언론사에서는 '기록이 없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를 고발하는 탐사보도를 단행하면서, 참여정부가 공공기관의 모든 기록관리 실태를 개선하는 특단의 조치로까지 이어졌다. 이후 많은 공공기관들이 자체의 업무로 기록 내에 기록관리 전문가를 배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생산되는 기록들의 확실한 보존을 통해 역사를 되살리려는 노력 등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여전히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중요한 기록들이 상당수가 제대로 된 관리의 부재 속에서 잃어버리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록들은 하나하나가 바로 한국의 과거과제와 관련된 기록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물론 현재의 해외과제 관련 기록의 관리 체계가 상당 부분 개선되어 전자시스템을 통한 생산, 이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청각 기록(동영상, 사진) 및 박물관 등도 이관이 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기록이 관련 기관으로 이관되어 지고 난 이후에는 해당 기록에 대한 검색 및 열람 서비스 접근이 쉽지 않다. 기록의 소장기관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다양한 기관으로 분산 관리됨으로써 기록들 간에 존재하는 백합을 파악하거나 특정 기록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확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파병부대에서 생산한 전자문서나 공문서실 외에 파병군인들이 파병지에서 수행했던 업무 성과나 경험들은 다음 파병 부대원들이 파병준비 간 참고할 수 있도록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전 PKO 센터)에서 귀고보서 형태로만 작성되어 보존된다. 파병지에서의 활동상과 관련된 일반 기록들이나 사진 자료들은 정기 파병사 폐착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기록들은 국방부 군사사업연구소/육군군사연구소로 이관되었으며, 중요한 퇴직한 기록들은 전쟁기념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한다. 즉 현재의 파병부대 기록 관리 체계는 하나하나의 파병부대와 관련된 기록들을 일련의 검색할 수 있도록 품질 수준, 이관 및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들의 성격 및 활용에 따라 각기 다른 기관으로 이관·보존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 파병부대에 대한 기록을 하나의 기관을 통해 열람하고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기록관리 체계상의 한계는 해외과제 업무수행 절차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유엔의 PKO 참여요원은 외교부를 통해 이뤄지고, 참여부대 검토 및 결정과정에서는 국방부도 동참한다. 해외과제 참여가
확정되고 나면 국방부가 업무수행을 전담하며, 부대가 파견된 현장에서는 함께 충분히 대완화된 업무위로 해외파병이 진행되다 보니 관련 기록 역시도 업무수행 주관기관의 기록관리 담당기관으로 분산되어 이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제 해외파병은 "한 나라의 안보사진이 단순히 국익의 국가방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역사적으로 사용되는 시대(국방대学校, 2012)" 그리고 동일 이후를 대비해 대한민국의 외교 및 안보영역 확대해 나가야만 하는 입장은 고려했을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당대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록들이 국가적・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은 확실히. 그러나 해외파병 업무수행절차 상의 구조적 문제나 수질 이후 기록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의 한계로 인해 현실과도 쉽지 않으며, 연구 측면에서의 활용 역시도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사회적・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위상과 결부되어 상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해외파병의 실상에 대해 기록화가 잘 되어있는지를 실효 관리하기 위해 1991년도 유엔아가와 앙후해 해외파병 관련된 기록의 현황과 실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해외파병 진행 과정에서 생산해야만 하는 기록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해외파병 단계와 각 단계별 업무수행 기관들을 파악하고, 이어서 각 기관별로 생산 및 관리하고 있는 기록의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정리한다. 정리된 기관별 기록 소장 현황을 바탕으로 특정 파병단계를 사례로 최초 단계에서부터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산된 일련의 단편 기록들을 클릭건화를 수행함으로써 해외 파병 기록들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해외파병 관련 기록물들에 대한 접근과 활용의 한계는 관련분야 연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전 파병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해외파병에 대한 기록물의 생산이나 이관현황, 기록물 관리실태의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문헌조사 결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일부 진행된 연구들은 해외파병으로 인한 외교관계의 변화나 파병정책 결정 요인 분석, 혹은 파병경쟁 병원의 실질 및 스트레스 관리 측면에 대한 연구로 국한되어 있었다. 해외파병이 가지는 의미를 제조하는 후재에 기억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으로 관리되어야만 하는지, 해외파병과 관련해서 가장 적합한 기록화관련은 무엇인지 등을 다루는 선행연구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일부 연구들은 베트남전 파병의 성격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국내 자료의 부재로 미국 측 자료에 의존한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해외파병 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해 안정(2014)은 베트남전 파병과 연관된 청와대, 국방부, 주한중앙문서관, 외무부 등의 정부기관 및 미법과 관련된 무기 등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리고 각 기관별로 파병화되어 보존중인 베트남 전 파병과 관련된 기록물의 파악하고, 역사적
인 재평가를 위해 이러한 기록물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해외
과병부대 기록물의 바람직한 활용 측면에서 해
외과병부대 기록물의 활용 가치를 분석하고 접
근방안을 모색하면서, 육군의 해외과병부대 기
록물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도 있었다(오재환, 2011).
해외과병과 관련된 의료정책의 변화 및 과병
정책 결정과정을 다룬 최근의 연구로는 하위논
문 연구 중에서 진행된 김정훈(2011), 이병록
있다. 이들 연구는 해외과병이 결정되는 과
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부분 베타남
전과 이라크전을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여 과병
정책결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분석
하고 있다.
과병 관련 국내기록의 부재를 지적한 연구로
정준길(2009)은 존재 행정부와 박정희 정부가
베타남전 과병을 통해 벌인 외교적 과정을 분
석하면서 국내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미국측의
자료에만 의존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
다고 밝혔다. 박태균(2006) 역시 베타남전 과
병과 관련한 한·미간의 협상 과정을 분석하던
서 정작 중요한 국내 문서들은 공개되지도 않
었다고 지적했다. 안정희(2014)는 베타남전 과
병과 관련된 국내 자료 현황을 정리하면서 국
방부에서 보관 중인 8권의 영인본 외에는 과병
당시의 1차 문서를 발견할 수 없어 대부분 파기
되었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간혹 개
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이는 해당부서의 생산문서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라
고 지적한 바 있다.
해외과병을 경험한 장병들의 인생 관리 측면
에서 정효현(2003)은 해외과병 경험 장병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아프리카 공격에 대한 명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스트레스 반응 및 조
직 효과성이 어떻게 달리 표출되는가’를 조사
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아프리카 공격에 명분이
없다고 인식하는 병사들이 과병에 명분이 있다고
인식하는 병사들에 비해, 스트레스의 심리적
반응, 행동적 반응, 조직적 반응, 직무만족, 조직
몰입면에서 조직에 열기능적인 유의자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과병병정에 선발 시 가치관과 의식을 우선 고려
하고, 과병 전 후로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실시
할 것과 전문적인 교육을 위한 정훈장교를 확
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과병 한국군의 과병병정 인식과 스트레스 반응
과의 상관성연구(정효현, 2003b)에서 ‘한국군
의 아프가니스탄 과병에 명분이 없다’고 인식하
는 장병들이 ‘과병에 명분이 있다고’ 인식하는
장병들에 비해 스트레스의 심리적 반응과 조직
적 반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발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한 정훈장교를 해외병부대
에 편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태균(2010)은
해외과병병정의 전장 및 직무 스트레스요인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요인 분석을 통해
해외병병병정들이 임무환경에서 다양한 전장 및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러한 경험은 임무
수행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
여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차원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해외과병 기록의 관리와 접근력이 중요하다고
나来た지만 특정성을 가질 수 있는 고 기록의
2. 해외과방의 개념과 절차

2.1 해외과방의 개념과 현황

『국군의 해외과방업무정리』제2조(1)에서는 해외과방을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다국적 평화활동 및 해외재난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부대 및 개인을 해외로 파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해외과방은 자국의 군대를 군사적 혹은 정치적 협력 등을 위하여 외국에 파견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해외과방의 법적근거(3)는 우선 대한민국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한미상호방위조약』제2조(5)에서도 한국과 미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무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거나 어느 당사국이든지 예외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하여, 단독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존중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고 강화시킬 것이며 조약의 실행과 조치를 합의하여 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외에도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4)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해외과방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구려계인 이정기의 손자로 산동반도에 진출해 독립을 형성하고 있었던 이사도가 819년 반란을 일으키자 당나라의 신라에 3만 명의 곤병을 요청하였고, 신라 현황왕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최초의 해외과방이 이루어졌었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1274년과 1281년 본국군이 대원을 이끌고 일본 원정에 나섰을 때 전투병 1,800명과 지원인력 21,700명, 전함 1,800척을 파견했다(5)(일본 전쟁, 2007). 조선시대에도 크고 작은 해외과방이 구두적 참행되었고, 근대에 들어서는 1964년 베트남 전쟁

3) 국방부훈령 제811호 『국군의 해외과방업무정리』에서는 외국에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 주둔하면서 과방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와 항정의 근무요원들도 포함하고 있다.
4) 대한민국 헌법 제5단죄 1항에서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외교적 정책을 부단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6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전선의 복구, 국군의 외국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의 유무에 대한 통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여 해외과방 시 국내의 통권을 반드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5)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과방의 정당화 논리는 많은 공격을 받아왔다. 특히 이라크전에 대한 과방이 기존의 당시 과방한 미군과 방위조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국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무력공격을 가하면서 전투병 과방을 요청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적법한 논쟁이 벌어졌었다.
6) 법률 제13123호, 2015.2.3. 부대개정, 제1조 이 법의 목적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한 과방부대와 참여 요원의 과방 및 천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때 의료진과 태권도 교관으로 구성된 비둘기 부대를 시작으로 1973년까지 8년 6개월 동안 32만 명의 인원이 파병되었다. 그리고 1991년 UN 가입 이후의 해외파병은 1999년 동티모르에 400여 명 규모의 전투부대가 파병되어 대민구호활동과 치안유지 활동을 펼쳤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UN 평화유지군과 국방협력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5년 9월 기준으로 총 27개국에 47,250명이 파병되었으며, 현재 파병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원은 2016년 6월 17일 기준으로 총 13개국에 1,118명이다.\(^7\)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수행된 해외파병 활동은 크게 세 가지 정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UN PKO)’으로서, 1993년 소말리아에 최초 상륙수 부대를 파병한 것을 시작으로 서부아프리카 군단 의료지원단, 앙골라 공방부대, 동티모르 상륙수부대, 아이티 단비부대 등이 파병되어 국제사회의 희망을 품으며 상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현재는 레바논 동방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가 UN PKO로서의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외에 부대단위가 아닌 개인으로서 정전 감시 요원이나 협조양교로 활약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는 ‘다국적군 평화활동’으로, 다국적군이 동맹군으로써의 임무 수행을 의미한다. 아프카니스탄 지역해결 · 청마 · 동아시아 · 다산 · 오세아시아 전역에 파병되었으며, 이לג에서는 서서히 재편 · 재난 · 자연재해 등 다양한 분야에 파병되어 임무를 수행하였고, 현재는 소말리아 아프리카 해외에서 정찰부대가 활동하고 있다.

세 번째는 ‘국방협력활동’으로서, 우리나라와 파병 대상 국가 간의 협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현재 임무수행중인 필리핀의 아라우부대와 아프가니스탄 아크부대를 예로 들 수 있다.

### 2.2 해외파병 절차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혈령 제1739호』(2014. 12.16.) 제4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해외정역 공식적인 해외파병 절차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단계별 임무수행과 관련한 절차만 명시하고 있음을 기록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제5조 각각의 임무에서는 “각 군 참모총장은 파병관련 자료 정리 및 존중을, 파병부대장은 파병 중 복귀 후 역사자료 및 보존 가치가 있는 정기자료 등을 확대하여 전쟁기념 사업회에 전달하며, 국방대학교총장(국제평화 활동센터)은 파병부대의 파병성과를 감사 및 파병요원의 귀국보고서 작성 감독 및 배포 관리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 파병추진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록은 파병과 관련된 공적적인 활동에 대한 책임질명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 요한 기록이며, 6단계에서 현지 파병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생산하는 기록 또한 국내 파병 추진기념에서 나가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실제 활동상을 조명할 수 매우 의미있는 기록이 다. 7단계 복귀 이후 진행되는 기록은 이관 및 보존되는 단계의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6.7단계는 파병기록 관리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주
가적인 검토를 통해 기록판의 속성을 보강하였다. 6단계의 과정 원리의부에서 반드시 생산되어야 할 기록은 각 군 본부(육군본부)의 기록 관리 규정에 따라 담당하고 있는 해외파병부대 기록관리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고, 7단계는 과병부대 후 과병부대에서 작성된 실제 기록을 이용한 월간, 국방화재지원센터 주관의 귀국 보고서 작성과 과병장과 교훈격 많, 군사연구소 및 군사연구소의 과병사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과 조사를 통해서 이미 생산되어진 기록의 보존 외에도 추가 연구를 통한 생산·보존되는 경계 이뤄지고 있는 시스템을 연계하였다.

해외화재지원부 수행계획은 육군의 특성지역에서 분명이 발생하거나 각국적평화를 위한 사태 발생으로 인해 해당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을 전개하도록 할 때에는 ① 유엔 사무총장이 분명한 사례에 특별조치안을 제출한 후, ② 특별조치안 보고를 기초로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의 구체적인 역할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게 함, ③ 유엔 안보리가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승인하고 결의를 체결하는 절차를 취한다. 이 과정에서 분명지역에 대한 PKO 운영 방침이 내부적으므로 결정되면 유엔은 임무수행에 적합한 국가를 대상으로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과병 가능 여부를 비공식적으로 탐색하기 때문에 각국의 PKO 참여 검토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유엔으로부터 비공식 의사 탐색을 접수한 후에 우리나라에서 적응하고 있는 과병 단계별 업무별 내용, 관련 부서 및 생산되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인 ‘과병 검토’ 단계와 관련된 부서는 대통령의 핵심 보좌기구로서 해외파병 지역ㆍ규모ㆍ지위와 임무 형태, 안전권역 및 국제관계와 부대 운영에 있어서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관련 정부 기관과 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방향을 최종 결정, 통제하는 대통령 비서실과 설무추진 부서인 외교부와 국방부를 둔 수 있다. 유엔으로부터 외교부에 요청이 접수되면 외교부는 이에 대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이하 합참)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국방부는 임무수행 형태에 따른 부대 가용성, 국익과의 관계, 현지 위험도,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며, 그 결과 과병이 UN PKO일 경우에는 외교부가 업무를 주관하며, 다국적군 운영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주관한다. 각 주관부서는 과병 검토 관련 문서들을 생산하게 된다. 이후 ‘외교안보정책 조정회의’를 통해 해당 문서
서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설득의 자료가 작성된다.

두 번째 단계인 ‘현지심사단 조사’는 파병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서, 조사단 편성은 정부･군･정계･학계 등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조사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는 없다. 조사단은 현지의 정착･외교･군사･지리･문화･종교뿐만 아니라, 특히 파병에 대한 당사국의 수용 의지와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 그리고 파병시 우리나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파병 부대의 효용성, 파병 규모, 부대수행 여건(위험도･안전성, 기후, 지속적인 군수 지원 가능성)에 관한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실사단 구성이나 과정계획, 조사결과 등과 관련된 문서들이 생산된다.

세 번째 단계인 ‘정부 정책 결정’ 단계에서는 현지 조사 결과를 기초로 관계기관 간의 토의와 검토를 거친 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또는 안보관계 장관회의)･자란회의의 의결･국무회의의 의결･대통령 결정 순으로 진행되는데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면 파병 참여 의사나 유형에 통보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안보관계 장관 회의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여러 차례 개최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는 각종 회의의 의의록, 파병안 제안 설명서와 더불어 파병 개요, 관련부처 합의 내용, 예산조정 등을 포함하는 ‘정부 파병안(파병동의안)’이 작성된다.

네 번째 단계인 ‘국회동의’ 단계에서는 ‘정부 정책 결정’ 단계에서 작성된 ‘정부 파병안’이 국회 의사국 의안과 접수된 이후 파병 부대의 성격에 맞춰 관련 상임위원회 회부(UN PKO)는 외교통상위원회, 국방은 국방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임위 전체회의가 진행된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참고 또는 관련된 제안설명과 함께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한다. 이어서 의원간의 정부 답변이 진행되며, 최종적으로는 참여의원과 방위부의 참석으로 국회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된다. 이 과정에서는 전문위원들의 검토결과와 시민단체 등의 제기사항이 포함된 예산결의안/답변서, 파병 관련 기본계획서, 제안설명서, 위원회포용 설명서(필요시) 등의 문서가 생산된다. 파병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나면 국방위외교위 대표의원은 국 회를 상대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 이어서 채권 토론이 실시된 후 표결에 봉여 파병수이상 완성시 파병 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국회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파병 기간, 규모, 임무, 지휘 관계, 부대위치, 예산소요 등을 포함하는 ‘파병 기본계획(국회동의안)’이 작성된다. 이 경우 군 감사관 요원이나 PKF 사령부 참모요원, 연락 장교는 개별적 참여로 간부이므로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

다섯 번째 단계인 ‘파병준비’ 단계에서는 참관과 각 군 본부, 파병 참가부대에 관여한다. 일반적으로 UN PKO 참여에 대한 정책 결정과 법적 조치가 완료되면 국방부 지정하달을 시작으로 파병준비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

10) UN PKO 파병의 경우, 외교부 고위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외교부, 국방부, 외교부, 국방부, 참관, 각 군 본부, 상병부대 등 관계 자는 정책참의단으로 구성하여 국회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다. UN PKO 이외(국방청, 국방참의) 파병의 경우 국방부 및 참관의 장성급을 단장으로 하며 이하 내용은 위와 같음.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운영 1739호)
부 정책 결정 이후 국회 동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소요 기간을 고려해 정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면서부터 파병 준비를 하는 것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예상되거나 전차상 국회 동의를 얻는 데 시일이 지하됨으로 인해 자칫 유해로 이어지는 적절한 시기에 파병을 못함으로써 국가 위상 실추와 실질적인 준비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파병 준비 단계에서는 부대 관성, 교육훈련, 행정, 군수지원 등이 이루어지며 또한 현지 협조단을 파견해 책임자 역할을 하고, 민사대책, 민사지원, 경호업무, 교육활동, 암득교대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파병단이 임무수행과 관련해 기록으로 남겨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민사지원, 수령 간단히 해석해도 지원계획이나 모든 활동 사항들을 기록으로 남겨야하며, 기본적인 부대활동 수행 간에도 정병들의 사기유지 및 부대훈련 전반에 대한 사항들이 시정각 자료를 포함하여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파병임무가 종료되고 국내로 복귀한 이후'에는 파병단의 주요 직원들이 국방대학교 국세공학당학습센터 주관으로 귀국보수를 완료하게 되며, 국세공학당학습센터에서는 귀국보수후 파병성과 교훈을 발전하여 자료를 존중한다. 또한 파병단에서는 파병기록에 대한 이권이 각 군 본부에 실시한다(단 한 동군은 합참 기록관실 로 이관), 국방부 군사진찰소 및 육군 군사연구소에서는 파병사 전반 연구 및 파병단 사전을 완료하여 보도하기도 하며, 역사자료,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자료 등의 주요 기록들은 이 후 전쟁기념관 및 기록정보관리단(해외파병 전시실)에 전시한다.

11) 파병 중 또는 복귀 후 역사자료,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자료 등을 확득하여 전쟁기념사업회에 전달하면, 전쟁기념사업회는 전쟁기념관을 통해 관련 기록들을 보존·전시하고 있다.
2.3 파병단계별 기록물 소재 파악

(그림 2)는 2.2절에서 살펴본 해외파병 단계를 토대로 각 단계별 생산되어야 할 기록과 주체기관의 예비 소장처를 보여준다. 물론 해외파병 임무의 수행 주체는 파병부대이지만, "국
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련 제4조에 명시된 공식 절차 중 해외파병과 관련해 국내에서의 파병절차 및 주간기관의 핵심 주체는 대통령 비서실(정 와대), 국방부, 외교부, 국무사령부, 그리고 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병권한 공적활동 및 수행 주체인 이들 4개 기관과 실제 파병부대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그림 2)에서 나타난 파병 정규별 주체기관들의 소강 기록 현황은 3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첫째, 대통령 비서실은 1단계부터 3단계의 정책결정 과정에 주로 관여하며, 6단계에서 파병부대 주간 위문이나 주요 사건·사고 관련 최초보고 등으로 인해 일부 관여하고 있다. 파병업무 추진 과정에서 법적으로 반대와 반론이 있어야 할 기록들은 파병 참여부과 검토, 주요문 정 등의 정책과 관련된 기록들이 대통령기록관에 소장된다.

둘째, 외교부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파병이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의 과정에 관여하고 있으며, 파병업무 추진 과정에서 외교부가 반드시 생산 및 보존해야 할 기록들은 최초 정책결정 과정 전 파병검토와 현지조사단 파견, 정부의 UN PKO 파병지 국외에 제출할 국외동의안(정부파병안) 등이 외교부 사료관에 소장된다.

셋째, 국방부와 합참은 전 단계에 걸쳐서 관여하고 있으며, 해외파병에 관한 국방부의 부서별 업무는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1739호에 의거 추진되며 있으며, 파병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생산하는 주요 기록물은 2단계 최초 정책 결정안 파병검토와 2단계 현지조사단 파견 계획 및 조사 결과, 3단계 정부 정책 결정을 위한 검토의견 및 정부 파병안, 4단계 국외동의안 관련, 5단계 파병준비 과정, 6단계 현지 파병부대에서의 주요사건 또는 중요안건에 대한 보고문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록들은 주로 국방부는 국방부 기록관, 합참은 합참 기록관에 보존한다. 합참은 자체 생산한 기록 외에도 파병부대 담당군을 제외한 국군권역(육, 해군)과 각 군부대의 경우, 상생기록의 일제를 합참 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해외파병 훈령(1739호)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방부산하 기관인 군사연구소와 육군군사연구소에서도 파병사 전반 연구와 관련 일부 기록물을 자체 소장하고 있다.

각 군 본부 역시 5단계 파병준비에서부터 파병부대 구성, 무대예규 및 교전수칙 작성, 전투 근무지침 등의 설립적인 파병준비 작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기록을 생산하며 각 군 자체 특수기관(육군 기록정보관)에 보존한다. 또한 7단계 파병임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각 군 본부가 파병부대에서 생산한 각종 기록들을 이관받아 보존한다. 12

셋째, 국회의 4단계 국외동의는 현행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군의 해외파병 시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기에 그동안 진행된 모든 파병에 대한 동의안은 국회도서관과 기록보존소의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다섯째, 해외 파병부대는 파병임무가 종료되고 복귀한 이후 파병임무 수행 간 생산했던 기록들을 각 군 본부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며, 희소가치가 있는 기록들은 전쟁기념관으로 이관한다.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에서 작
한 번에 현장을 집계하기가 매우 제한되었으며, 목록은 비공개가 많아서 다다음 확인하기가 어려웠음을 밝혀둔다.

3.1 대통령 기록관(14)

최고의 국장수행 결과물이라는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대통령 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관리법) 제 7조(15)에 의해 보관기관인 대통령 비서실을 포함한 자문기관, 인사기관 등의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 을 이관받는다. 따라서 해외파병과 관련하여 대통령 비서실에서 생산된 모든 기록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된 이후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존되고 있으며, 확인 결과 적속기관(비서실 등 12개 기관)에서 생산하여 보존중인 기록물은 58,550건, 자문기관(국가안보보좌관회의 등 17개 기관)에서 생산하여 보존중인 기록들은 40,076건이었다. 모든 기록이 전자문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이나 녹취록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들이 다수 확보되었으며, 이러한 기록들은 대통령 기록관 홈페이지(16)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한 해외파병 관련 보존 기록의 사례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에서 예로 든 보존 기록물 중 이라크 파병에 대해 국가인보 보좌관이 국정관리를 실시하는 모습을 남긴 사진 기록의 경우, 당시 이라크 파병에 대한 반대가 심했고 국민의 여론을 의식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table>
<thead>
<tr>
<th>영역</th>
<th>기록별</th>
<th>내용</th>
<th>기록유형</th>
<th>출처</th>
</tr>
</thead>
<tbody>
<tr>
<td>파병</td>
<td>유엔 헤비는 평화유지군(UNIFIL) 참여문제 검토(’05)</td>
<td>헤비는 동명부대의 최초 파병 전 검토내용</td>
<td>문서</td>
<td>비서실</td>
</tr>
<tr>
<td></td>
<td>해외파병부대 파견기종 경보(’05)</td>
<td>저자분부대 연장관련 검토 보고</td>
<td>문서</td>
<td>비서실</td>
</tr>
<tr>
<td></td>
<td>이라크파병에 대해 브리핑하는 국가인보 보좌관(’05)</td>
<td>이라크 파병에 대해 브리핑하는 국가인보 보좌관</td>
<td>사진</td>
<td>홍보실</td>
</tr>
<tr>
<td>주요</td>
<td>아프간 자살폭탄테러 관련 최초 상황보고(’05)</td>
<td>아프간 폭탄테러로 화생된 7명의사와 관련된 최초 상황보고</td>
<td>문서</td>
<td>비서실</td>
</tr>
<tr>
<td>사건</td>
<td>자이드부대 총기사방사고 최초보고(’05)</td>
<td>자이드부대 총기사방사고 관련된 최초 보고 내용</td>
<td>문서</td>
<td>비서실</td>
</tr>
<tr>
<td>보고</td>
<td>이 대통령, 첫 해외파병부대 방문(’11.11.3)</td>
<td>이 대통령, 첫 해외파병부대 방문과 관련된 최초 보고 내용</td>
<td>문서</td>
<td>비서실</td>
</tr>
<tr>
<td></td>
<td>해외파병 장병 가족우편 오찬 시 말씀 자료(’99)</td>
<td>해외파병 장병 가족우편 오찬 시 노무의 대통령 연설 내용</td>
<td>녹취록</td>
<td>홍보실</td>
</tr>
</tbody>
</table>

(14) 대통령기록관은 2005년 1월에 제정되어 7월31일에 시행된 대통령기록관리법에 의해 대통령기록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보존기록관이다.

(15) 대통령 기록을 생산하는 모든 기관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으로 생산·관리되는 도록 하여,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은 대통령 기록을 철저하게 수집·관리하고, 충분히 공개·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6) http://www.pa.go.kr/ (검색일: 2016.8.2)
간국과 해주는 의미 있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이르러 파병에 대한 빗빛지는 반대와 총출시 등의 뜨거운 논쟁 등과 관련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3.2 외교부 사료관

외교부 기록관리담당부서에 확인 결과 해외 파병과 관련된 안보리 결의문 및 참조기고 등의 중대기록물로 구성된 문서철 123권이 외교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체 외교부 사료관에 보존되고 있었다.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한 해외파병 관련 보존 기록의 사례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UN PKO인 서부사하라 외교 부대에 관한 파견동의안 기록을 살펴보면, 유엔국의 회원으로서 국제평화유지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다는 과견목적과 국제동의가까기의 정부 정책 결정 추진 과정, 부대편성, 소요예산, 군수지원 등을 포함하는 파병 기본계획 등과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유엔사무총장의 파견요청(94.2)을 접수하여 관계부처의 회의, 정부협동(의외부, 국방부) 실무조사 파견, 대통령 제거를 거쳐서 국제동의안 확정(94.5)까지 약 3개월간의 정부추진 과정을 거친 후 본래 파병(94.9월)이 되기까지 7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UN PKO 아이디 단비단 파병 사례(18)을 보면 약 1개월 만에 파병이 되기도 하는 등 자세한 파병 사례를 놓쳐 국제 사회의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추계에 맞는 신속한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thead>
<tr>
<th>영역</th>
<th>기록유형</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UN파병요청</td>
<td>안보리결의(2132호)</td>
<td>남수단 파병과 관련 안보리 결의내용</td>
</tr>
<tr>
<td>현지조사단 파견</td>
<td>유엔 PKO 파견 국군부대에 대한 성과평가 파견(13-930)</td>
<td>남수단 입대단/해외는 평화유지군에 대한 활동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동 성과평가 단이 2013년 2월 2일 및 4월 1일 유엔본부, 남수단 해외를 방문한 결과 보고</td>
</tr>
<tr>
<td>동의안제출</td>
<td>국군부대의 해외 파병 평화유지군 (UNIFIL), 관계동의안(96.12.4)</td>
<td>해외는 동의안 완료, 중동지역 평화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해외 파병평화유지군 파견 동의안</td>
</tr>
<tr>
<td>한국외교부의 서부사하라 유엔 평화유지군</td>
<td>요청(94.2월), 확정(94.5월), 파병(94.9월)</td>
<td>문서</td>
</tr>
</tbody>
</table>

17) ‘공공기관관리법’ 제 14조 동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소관 기록을 장기간 관리하기 대란 경우 국방기록관리기관(국가기관)과 협의하여 특수기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특수기록은 관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공공기관의 기록의 수립·관리 및 활용, 특수기록에 설치되지 않은 관련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의 기록 이관, 관련 공공기관의 기록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관련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그 밖에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동의 및 업무를 수행한다. 국방부의 경우 육군본부의 기록정보관리단, 해군본부의 해군기록관리단, 공군본부의 기록기록관리단에 위탁하고 있다.

18) 파병요청(11.20), 정부결정(안보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 11.26), 국방회의(12월 초), 파견(12월 중순)
### 3.3 국방부 기록관

국방부는 '공공기록관리법' 제14조 조항부시 관련 기록을 생산하는 특수기관에 해당하며, 각 군본부에도 특수기록관리기관(20)을 운영하고 있고, 국방부내 자체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 기록관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현재 보존 중인 기록관 기록은 전자문서 49,269건, 종이 기록 24,089건, 파병 교훈집을 포함한 간행물 142권 등이었다. 파병 추진 단계별로 국방부에서 생산하였으나 파병부에서 생산하여 보관한 보고서 등 현재 국방부 차원에서 보존 중인 기록물의 예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파병등의안, 국회의정, 안보리결의 등 정부추진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들과 각 분야별 파병지원과 관련된 기록들이 전자문서로 생산되어 보존되고 있다. 그 중 '아프간 다산·동의부대 철군 축구단에 대한 국방부 검토 의안'을 통해서 당시의 파병 철군에 대한 국내외론과 아프간의 정세, 그리고 핵심 사안으로 부각되었던 파병사건과 대비 사안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확인 가능할 것으로 짐작했다. 비공개 문서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사회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검은일색 파업과 관련되어 아프간 주둔 다산동부대의 철군을 촉구하는 시위가 활발했을 민간영역(신문기사, 인터넷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영역의 기록에는 정부추진과 관련되거나 마련되는 쟁점들은 매우 제한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table>
<thead>
<tr>
<th>영역</th>
<th>기록명</th>
<th>내용</th>
<th>기록유형</th>
<th>출처</th>
</tr>
</thead>
<tbody>
<tr>
<td>정부 정책 결정</td>
<td>국군 이에러 추가파병 중단 및 사회·제외부대 철군 결정안 검토보고서 검토결과(04.3.31)</td>
<td>이에러 국외분부 추가 파병 중단과 사회·제외부대의 철군 결정안 내용</td>
<td>문서</td>
<td>정책조정담당관</td>
</tr>
<tr>
<td></td>
<td>국무회의(16회~23회)</td>
<td>한국 외교부의서 사용자 업무 영사유지단 결정안(23회)</td>
<td>문서</td>
<td>총무처</td>
</tr>
<tr>
<td></td>
<td>아프간산 파견 국군부대 철군 축구단 국방부 업무 의견 제출(11.7.21)</td>
<td>아프간 다산·동의부대 철군 축구단에 대한 업무 의견</td>
<td>문서</td>
<td>민정협력담당관</td>
</tr>
<tr>
<td></td>
<td>안보자문의(12.3.23)</td>
<td>유엔 아프가니스탄 주무부대 업무지침</td>
<td>문서</td>
<td>국외협력과</td>
</tr>
<tr>
<td></td>
<td>자회사 및 국외의 상정보고(12.9.18)</td>
<td>아프간산 파견 철군 및 단계별 철수계획 동의안</td>
<td>문서</td>
<td>국외협력과</td>
</tr>
<tr>
<td></td>
<td>사회·제외부대 환경조사 계획(04.4.17)</td>
<td>사회·제외부대 환경조사</td>
<td>문서</td>
<td>국방부 총무과</td>
</tr>
<tr>
<td></td>
<td>아프간 등의 국외수사지 revis 04(04.20)</td>
<td>이에러 국외지휘관의기</td>
<td>문서</td>
<td>국방부 총무과</td>
</tr>
<tr>
<td>파병 준비</td>
<td>아프간 총량소 (20)</td>
<td>조정회의 하사 관련 조정관리(07.3.9)</td>
<td>문서</td>
<td>정책조정보고팀</td>
</tr>
</tbody>
</table>

19) '공공기록관리법' 제13조 제1항 특수기록관을 설치하는 기관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20) '공공기록관리법' 제14조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은 보관 기록을 장기간 관리하고 자 하는 경우에 중앙기록관리기관(국가기록원)과 협의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육군본부에서는 기록정보관리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에서는 역사기록관리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생산이 되었다. 하타도 대부분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군 기록의 특수성에 기인한 비공개 설정으로 판단된다.

합참 기록관은 국방부와 동일하게 자체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병 전 단계에 대한 합참 자체 생산기술이 자체 기록관에 보존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프간 파병준비 관련보고' (2009.11.5), '아프간과의 계획수립 및 부대편성' 등과 같은 기록들이 합참 기록관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합참에서는 자체 생산한 기록물 외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군원성 파병부대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이관받아 보존하고 있다. 현재 방문을 통해 다양한 기록들이 이관 및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1991년 걸프전 파병과 1994년 서부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 2003년 세류-제자부대 등의 의료부대의 기록은 단 한건도 이관되지 않는 등 일부 기록관이 부실한 부분도 확인되었다. 합참 기록관의 해외파병 관련 기록물의 유형별 보존 현황 및 세부 기록의 사례는 〈표 4〉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 〈표 4〉 합동참모본부 기록관 유형별 파병기록 보존 총괄 현황

<table>
<thead>
<tr>
<th>합계</th>
<th>비전자</th>
<th>전자</th>
<th>시설적 기록</th>
<th>구조 기록</th>
<th>행정</th>
<th>간행물</th>
<th>기타 (산문 기사 등)</th>
</tr>
</thead>
<tbody>
<tr>
<td>비전자 문서 (종이)</td>
<td>전자 문서 (RMS)</td>
<td>사진 (패임)</td>
<td>사진 (필름)</td>
<td>사진 (현상)</td>
<td>영상 (비디오)</td>
<td>간행물</td>
<td>522</td>
</tr>
<tr>
<td>363,545</td>
<td>85,921</td>
<td>217,062</td>
<td>54,607</td>
<td>2,863</td>
<td>2,836</td>
<td>744</td>
<td></td>
</tr>
</tbody>
</table>

### 〈표 5〉 합참 기록관 파병기록 사례

<table>
<thead>
<tr>
<th>영역</th>
<th>기록명</th>
<th>내용</th>
<th>기록유형</th>
<th>출처</th>
</tr>
</thead>
<tbody>
<tr>
<td>정무 의사결정</td>
<td>걸프전파병(국무회의록)'91.2.1)</td>
<td>한국공군 걸프지역 공군 파견안</td>
<td>문서</td>
<td>국방부의결과</td>
</tr>
<tr>
<td>외교경호</td>
<td>협조상담기록(95)</td>
<td>협조상담 기록</td>
<td>문서</td>
<td>해외파병과</td>
</tr>
<tr>
<td>파병준비</td>
<td>동맹부대 해외파병 계획수립 부대편성(07.6.5)</td>
<td>동맹부대 지원 파병계획</td>
<td>문서 (비공개)</td>
<td>해외파병과</td>
</tr>
<tr>
<td></td>
<td>합참 아프간 파병준비 관련보고(09.11.5)</td>
<td>과태략적국 외교외동과 전후 상황 관련 보고</td>
<td>문서 (비공개)</td>
<td>해외파병과 및 작전과</td>
</tr>
<tr>
<td></td>
<td>걸프전(91)</td>
<td>지명 91-1호 의사결정된 사우디 파견 명령</td>
<td>문서 (비공개)</td>
<td>해외파병과</td>
</tr>
<tr>
<td>파병 간</td>
<td>동맹부대 파병작전 문서집(11)</td>
<td>동맹부대 파병 관련 문서</td>
<td>문서</td>
<td>해외파병과</td>
</tr>
<tr>
<td></td>
<td>동맹부대 파병작전 문서집(03)</td>
<td>동맹부대 파병 관련 문서</td>
<td>문서</td>
<td>해외파병과</td>
</tr>
<tr>
<td></td>
<td>아프간 건호(07)</td>
<td>아프간 파병 지원</td>
<td>문서</td>
<td>해외파병과</td>
</tr>
<tr>
<td></td>
<td>아프간 한국 PRT 임무중요성 잠재결과보고(14.12.26)</td>
<td>국외부 파병의 PRT 임무중요성 해외 파병 관련 현지 방안 결과</td>
<td>문서</td>
<td>군수부</td>
</tr>
<tr>
<td>파병 복귀 후</td>
<td>걸프전 파병 임무자료</td>
<td>국군의료지원단 걸프전파병 파병자료</td>
<td>문서</td>
<td>해외파병과</td>
</tr>
</tbody>
</table>

해외파병과에서 생산한 기록들은 해외파병 추진 과정에서의 파병계획, 부대편성 등 합참이 파병전담 부대로서 생산한 기록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파병부대(국군본부부대)에서 직접 이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배트램프 관련 기록들은 다수 소장하고 있었다. 또한 파병 중 추진 단계에서 국회의도의 전리라도 파병요청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위해 파병준비 안을 미리 마련해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파병단계와 관련된 문서들 대부분의 보존 연한은 준영구,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어 세부 내용 확인은 불가능하였다. 5단계 파병준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는 각 군 본부는 국방부(합참)에서 파병지원이 허당되면 파병부대 구성, 부대계획 및 전개계획 작성 등의 실질적인 파병준비 작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기록들을 생산한다.

7단계 파병임무가 종료된 해외파병 부대는 '공공기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내에서 운영되는 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수 기록관에 해당하는 각 군 본부 기록관으로 기록물은 이관해야만 한다. 단 해외파병부대가 합동 부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파병임무 규정과 제20조에 의해 합참 기록관으로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국방안보보안부의 특수기록관인 각 군 본부 기록관에 보존되어 있는 해외파병 기록은 30년이 경과한 영구기록에 대해 증앙기록물 관리기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공공기관 기록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어서 임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대부분의 해외파병 기록들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배트램프 파병 관련 기록들은 생산 이후 30년이 경과하여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및 보존되고 있지만, UN 가입 이후의 해외파병은 아직 30년이 경과되지 않아 파병부대에서 생산한 기록들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기록이 없는 상황이다.

대다수의 파병부대는 육군 위주의 전부 대내적으로 해당 부대에서 생산된 기록은 육군 기록관보관기관에서 수집을 전담하고 있으며,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는 역사기록관리관에서 기록물 수집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각 군 본부 기록 관보관기관 및 역사기록관리관에서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는 해외파병 관련 기록물의 유형별 현황은 <표 6>에 보는 바와 같다.

육군본부 기록보관기관에서 수집하여 보존중인 해외파병 관련 기록의 사례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6](image)

![표 7](image)

22) "공공기관 기록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폐지기록의 기록관리)"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정, 그 공공기관 내에서 운영된 부서가 폐지되고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이 지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table>
<thead>
<tr>
<th>항목</th>
<th>기록명</th>
<th>내용</th>
<th>기록유형</th>
<th>출처</th>
</tr>
</thead>
<tbody>
<tr>
<td>정부결정</td>
<td>동명대재개발사업(안) 국회 본회의 공고</td>
<td>동명대재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준비대응</td>
<td>문서</td>
<td>작성과</td>
</tr>
<tr>
<td></td>
<td>레바논의 자결합동</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이익을 위한 토론</td>
<td>문서</td>
<td>작성과</td>
</tr>
<tr>
<td></td>
<td>제1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공보과</td>
</tr>
<tr>
<td></td>
<td>제2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3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4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5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6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7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8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9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10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11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12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13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14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15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16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17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18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19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20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21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22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23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24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25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26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27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28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29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30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31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32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33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34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35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36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37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38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39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40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41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42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43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44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45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46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47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48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49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50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51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52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53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54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55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56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57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58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59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r>
<td></td>
<td>제60회재개발사업</td>
<td>정부결정에 대한 국민적합해 해상중</td>
<td>문서</td>
<td>예산혜택과</td>
</tr>
</tbody>
</table>

파병 예산확보, 현지 협조단 운용, 인원선발 등과 관련된 기록들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문서 샘플의 기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중 베트남전부터 서혜(재마) 리움, 이카, 교도지, 백도지, 아산, 동라부대, 이카 카이룬대 등과 관련된 파병일지 중 상정적인 기록들을 선별하여 육군본부 내에서 자세적으로 기록 정리와 확실한 지침과 해설을 작성하고 지식을 확산하고자 한다.

다음은 국방부 산하기관으로서 연구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군사학사연구소, 파병학교 이후 귀국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국제전략사항을 삼성공주로 이관한다. 앞서 설명한 군사학사연구소와 유사성 에 급급한 군사연구소는 파병 일정을 정부외교, 국방부, 국방자치 및 경제부가 향후 파병을 지속적으로 이관하였다. 그러한 중권해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0년도부터는 파병과 관련한 장병들을 대
상으로 증언록을 작성하여 자체 보존하고 있으 며, 세부적인 현황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내용을 살피보면 유엔 기업 이후 최초의 UN PKO 파병이었던 상륙수부대를 비롯한 해외(제미, 동티모르, 인도네일리아, 파키스탄 등)의 다양한 사안들에 관련된 8년의 파병기간은 증언록이 생산되지 않았다. 특히 최초의 전투부대 파병이었던 상 릭수부대와 실제 전투 전무 지역에 파견되었던 일본사사라가 국외의외부대 및 공군수송부대에 대한 내용이 빠진 점은 많은 의문으로 남는다. 베트남전을 제외한 전투경험이 없는 한국군에게 해당 지역의 전투경험이 부족한 증언록은 전쟁지역에서의 경험과 실상을 간접적으로 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에 소중한 기록이었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용적 인 측면에서는 개인별 간략한 분량의 전투위주 실 사례에 대한 경험담을 다루고 있다는 것 이외의 사항은 비공개로 지정되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국방대학교 국외평화활동센터의 파 병에서 복귀한 장병들을 소집하여 귀국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준으로서, 자체 기록관이 없기 때문에 일부 기록들은 부서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 파 병 성과집 및 귀국보고서는 자체보관 및 국방부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있다. 총 60여건의 귀국보고서가 국외평화활동센터 자체 홈페이지에 PDF 파일 형태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재 소장 중인 해외병역 관련 기록의 사례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table>
<thead>
<tr>
<th>영역</th>
<th>기록명</th>
<th>내용</th>
<th>기록유형</th>
</tr>
</thead>
<tbody>
<tr>
<td>&lt;표 8&gt; 군사편찬연구소 파병기록(녹취록) 총괄사례</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캐나다/미합중국 중부수록 1(1-3년)(1)</td>
<td>동명부대(25명)</td>
</tr>
<tr>
<td></td>
<td></td>
<td>이탈리아 제주중부수록 1(1-2년)(1)</td>
<td>단위부대(30명)</td>
</tr>
<tr>
<td></td>
<td></td>
<td>아프간 제주중부수록 1(1-3년)(1)</td>
<td>오픈노부대(30명)</td>
</tr>
<tr>
<td></td>
<td></td>
<td>소말리아/아프리카 중부수록 1(1)(2)</td>
<td>적대부대(30명)</td>
</tr>
<tr>
<td></td>
<td></td>
<td>미국 군사평화사 중부수록 1(1-2년)(12)</td>
<td>아오부대(30명)</td>
</tr>
<tr>
<td></td>
<td></td>
<td>이탈리아 제주중부수록 1(1-3년)(13)</td>
<td>단위부대(30명)</td>
</tr>
<tr>
<td></td>
<td></td>
<td>아프간 제주중부수록 1(1-3년)(13)</td>
<td>오픈노부대(30명)</td>
</tr>
<tr>
<td></td>
<td></td>
<td>나이지리아 제주중부수록 1(1-3년)(14)</td>
<td>환복부대(30명)</td>
</tr>
<tr>
<td></td>
<td></td>
<td>캐나다/미합중국 중부수록 2(2-5년)(1)</td>
<td>동명부대(25명)</td>
</tr>
<tr>
<td></td>
<td></td>
<td>이탈리아 제주중부수록 1(1-3년)(1)</td>
<td>단위부대(30명)</td>
</tr>
<tr>
<td></td>
<td></td>
<td>아프간 제주중부수록 1(1-3년)(1)</td>
<td>오픈노부대(30명)</td>
</tr>
<tr>
<td></td>
<td></td>
<td>미국 군사평화사 중부수록 1(1-3년)(15)</td>
<td>아오부대(30명)</td>
</tr>
<tr>
<td></td>
<td></td>
<td>시적구 (녹취)</td>
<td></td>
</tr>
</tbody>
</table>


(라인)
부대단위 및 개인 파병에 관한 귀국보고서
는 국제평화활동센터 내부 홈페이지에 전재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파병 교훈기록으로 발간하여 내대외 홍보 및 활용토록 하고 있다. 『동봉부대 귀국보고서』의 경우 15권에 관한 사항으로 데바논의 국가 및 문화 소개, 15권의 장소부터 부대전 개개과정, 파병 후 임무 관련 민사작전 소재 및 유의사항, 특히 홍보와 관련된 공보문의에 비중을 많이 두었으며, 홍보실적 사례도 담재하고 있다. 데바논 관련 주요 정부인사 및 인물에 대한 소개와 동맹군들의 장비를 소개하 여 다루고 있다. 그러나 15권에 관한 단편적사항으로 파병의 시작과 1년부터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3.4 국회(국회도서관)


### 表 9: 국제평화활동센터 파병기록 사례

<table>
<thead>
<tr>
<th>영역</th>
<th>기록명</th>
<th>내용</th>
<th>기록형식</th>
</tr>
</thead>
<tbody>
<tr>
<td>귀국보고서</td>
<td>동봉부대 귀국보고서(155)</td>
<td>동봉부대 15권 귀국보고서</td>
<td>문서</td>
</tr>
<tr>
<td></td>
<td>항구직자유착용성결과(81.18)</td>
<td>대산군. 동익11편 부대 귀국보고서</td>
<td>문서</td>
</tr>
<tr>
<td>파병</td>
<td>동봉부대 16천 파병성과 및 교훈집(1611)</td>
<td>데바논 동봉부대 16천 파병활동성과 및 교훈 발간물</td>
<td>문서</td>
</tr>
<tr>
<td>성과/교훈집</td>
<td>항구직 자유착용 활동 결과</td>
<td>동봉부대 1천 귀국보고서</td>
<td>문서</td>
</tr>
</tbody>
</table>

### 表 10: 국회도서관 파병기록 사례

<table>
<thead>
<tr>
<th>영역</th>
<th>기록명</th>
<th>내용</th>
<th>기록형식</th>
</tr>
</thead>
<tbody>
<tr>
<td>국회동의안</td>
<td>국방위원회 회의록[제263회(1차)] / 대한민국 국회 제17대 국회의의록 [상임위원회, 2006.12.12]</td>
<td>이라크 파견연장/감축 동의안(정부제출)</td>
<td>문서</td>
</tr>
<tr>
<td></td>
<td></td>
<td>자기동부대 철군축구 결정안</td>
<td></td>
</tr>
<tr>
<td></td>
<td></td>
<td>대대전정 파견연장 동의안</td>
<td></td>
</tr>
<tr>
<td></td>
<td></td>
<td>공병부대의 대대전경연장 동의안</td>
<td></td>
</tr>
<tr>
<td></td>
<td></td>
<td>유엔리버남평화유지군 파견동의안 등 포함</td>
<td></td>
</tr>
<tr>
<td>국회동의안</td>
<td>제19대 국회의의록[상임위원회, 2014.11.24] / 외교통상일권위 회의록[제392호(5장)]</td>
<td>국방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td>
<td>문서</td>
</tr>
<tr>
<td></td>
<td></td>
<td>UN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td>
<td></td>
</tr>
<tr>
<td></td>
<td></td>
<td>UN 남서부 담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td>
<td></td>
</tr>
<tr>
<td></td>
<td></td>
<td>UN 케리의 평화유지단(UNIFIL) 파견 연장 동의안 등 포함</td>
<td></td>
</tr>
<tr>
<td></td>
<td>국군부대의 이라크파병 연장 및 감축 계획 동의안[국방위원회, 2006.12.12]</td>
<td>이라크 자이璠부대 파병 연장 및 감축 계획에 관한 내용</td>
<td>문서</td>
</tr>
</tbody>
</table>
4. 파병부대별 기록 수집 현황
[동명부대와 다산·동의 부대의 파병 기록을 중심으로]

앞서 3장에서는 국내 파병단계별 추진기관의 소장된 기록의 현황과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본장에서는 파병기록과 관련한 규정을 〈표 11〉에서 살펴보고, 실제 파병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대에서 이관하여 수집된 기록의 유형별 총 현황 〈표 12〉를 살펴본 후 실제 파병부대를 사례로 파병단계별 추진 관련기관에서 정부정책과 관련한 기록들과 현지 파병부대에서 생산되어 이관되는 기록, 파병부대 후의 귀국보고서 등의 기록들을 일관된 절차와를 통해 전달하였다. 사례부대는 UN PKO의 최장기간 파병부대이며 가장 모범적인 UN PKO 부대로 칭송받았던 동명부대. 그리고 UN 다국적군 파병부대로서 국내 파병 당시 생산 논란이 되었던 미국의 9·11 대테러작전에 투입된 공병·의료부대는 다산·동의부대를 선정하였다.

해외파병과 관련된 기록을 관리와 관행에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운영」은 제5조 (부서별·기관별 업무분장)에서 각 군 임무중 가장 '파병관련 사고 경보 및 조언을 관리해느냐는 책임소재를 명시하고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군에서 자체적인 규정에 의거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세부 내용 요약</th>
</tr>
</thead>
<tbody>
<tr>
<td>목적</td>
<td>육군 단위로 관리는 해외파병부대의 기록관리과 관련을 규정. 합동군에 대한 기록관리는 환경 특수기록관에서 관광</td>
</tr>
<tr>
<td>책임</td>
<td>파병부대의 모든 기록물 관리책임은 인사상무처(인사행정과)에 있음 - 기록물 종합 및 관리, 등록관리, 공개구분, 생산 현황통보, 이관 수행</td>
</tr>
<tr>
<td>파병전 관리</td>
<td>기록정보관리국에서 파병 예정 부대원 대상으로 기록관리 소방교육과 기록관리업무방안(부서별) 대상으로 기록관리자 교육 실시. 필요 시 종합행정학교에서 파병부대 기록관리 교육 대상 가능.</td>
</tr>
<tr>
<td>파병중 관리</td>
<td>파병부대의 엄밀한 관리 방침을 준수하고 한부대와 향후 파병의 중요한 자료가 되도록 반드시 기록화하여 관리토록 명시. 현장 작업중, 대면지원, 외국군 부대와의 업무협조 등 기록으로 생산 및 관리하며, 사전, 비디오 등 시청각기록물 등의 간사, 정리 작업 후 파병 종료 시에 이관함이 원칙</td>
</tr>
<tr>
<td>기록물 이관</td>
<td>파병부대 기록관리책임자는 이관대상 기록물을 귀국과 동시에 최근 기간 내에 기록정보관리단으로 이관시킨 실시</td>
</tr>
<tr>
<td>활용</td>
<td>기록정보관리단은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보존과 관리와 동반 파병서류사용 및 자료 파병부대에 필요한 기록정보 제공. 이용자 요청이 있을 경우 기록정보관리단은 적시작업하게 제공하며 기록물의 업무적, 증거적 가치를 재교직할 필요</td>
</tr>
<tr>
<td>지도/감독</td>
<td>기록정보관리단장은 파병부대 기록물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시 점검을 실시. 자료 방출관리 실시 가능. 기록관리 지도방침 및 점검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파병방침 부대에서 지원</td>
</tr>
<tr>
<td>기타 사항</td>
<td>기록관련 설치, 운영하지 않는 파병부대에서는 생산된 모든 기록물을 폐기없이 이관</td>
</tr>
</tbody>
</table>
해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해외파병부대가 육군 부대임을 감안하여 육군분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해외파병부대 기록물 관리체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다음 수집된 기록물 현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육군규정153 '기록물관리 및 인쇄규정'(2016.4.15. 부분개정)의 "제3장 파병, 해제 및 개편부대 기록물 관리" 제46조 (파병부대 기록 물 관리)에서는 육군 단일군(합동군의 경우는 합참 특수기록관에서 관리)으로 판정된 해외파병부대의 파병 준비로부터 귀국 후까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전반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상과 같은 규정에 의거하여 파병부대에서 생산 및 이관한 기록물의 보존실태 확인을 위해 수차례의 기관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황을 정리하였다. 파병부대별 보존 기록물의 종 현황은 <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중 동병부대와 다산·동병부대를 중심으로 수집되어 있는 기록물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UN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으로 파병된 동병부대는 레바논 남부지역(세르)에 파견되어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 평화해결 임무를 수행 중이며, 세부적인 업무는 감사장장, 레바논 군 협조·지원, 지역주민 순회 방문(9만명 돌과), 25) 수의 전료(가축 19,231마리), 태권도·한국어·컴퓨터·생활교실 운영, 도로 건설 등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소계</th>
<th>비전자 문서(종류)</th>
<th>전자 문서</th>
<th>식기기 기록</th>
<th>드럼기 기록</th>
<th>구술 기록</th>
<th>행정 백물</th>
<th>간행물</th>
<th>기타 (신문기사 등)</th>
</tr>
</thead>
<tbody>
<tr>
<td>UN PKO</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독특모 (장독수)</td>
<td>202</td>
<td>190</td>
<td>-</td>
<td>3</td>
<td>4</td>
<td>-</td>
<td>5</td>
<td>-</td>
<td>-</td>
</tr>
<tr>
<td>레바논 (동맹)</td>
<td>53,874</td>
<td>9,275</td>
<td>43,423</td>
<td>908</td>
<td>59</td>
<td>-</td>
<td>109</td>
<td>-</td>
<td>-</td>
</tr>
<tr>
<td>아티리 (단비)</td>
<td>60,395</td>
<td>52,255</td>
<td>8,019</td>
<td>29</td>
<td>14</td>
<td>-</td>
<td>78</td>
<td>-</td>
<td>-</td>
</tr>
<tr>
<td>남수단 (환법)</td>
<td>16,841</td>
<td>5,226</td>
<td>11,610</td>
<td>1</td>
<td>4</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다국적 군 PKO</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아프간 동의/다산</td>
<td>15,427</td>
<td>4,316</td>
<td>10,082</td>
<td>186</td>
<td>90</td>
<td>-</td>
<td>7</td>
<td>-</td>
<td>-</td>
</tr>
<tr>
<td>아프간 (호주)</td>
<td>481</td>
<td>458</td>
<td>-</td>
<td>1</td>
<td>14</td>
<td>-</td>
<td>8</td>
<td>-</td>
<td>-</td>
</tr>
<tr>
<td>아라비 (네덜란드)</td>
<td>258,326</td>
<td>13,635</td>
<td>243,836</td>
<td>677</td>
<td>25</td>
<td>-</td>
<td>151</td>
<td>-</td>
<td>-</td>
</tr>
<tr>
<td>국방 협력</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필리핀 (아라우)</td>
<td>699</td>
<td>-</td>
<td>636</td>
<td>-</td>
<td>-</td>
<td>63</td>
<td>-</td>
<td>-</td>
<td>-</td>
</tr>
<tr>
<td>UAE (아랍)</td>
<td>9,679</td>
<td>-</td>
<td>9,67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합계</td>
<td>415,524</td>
<td>85,455</td>
<td>328,033</td>
<td>1,865</td>
<td>210</td>
<td>-</td>
<td>421</td>
<td>-</td>
<td>-</td>
</tr>
</tbody>
</table>

25) 국방일보, "동병부대 파병 9주년 의료지원 9만명 달성", 2016. 7. 27.
의. 동명부대에서 생산하여 현재까지 이관된 기록물은 총 53,874건으로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사자문서(3,975건)에 비해 전차문서(43,423건)의 비중이 현저히 높은데, 이는 2007년부터 전차기록 생산 및 등록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시정각기록 측면에서 동명상 기록은 다수 생산되었으나, 구순기록 생산은 단 한건도 없이 확인되었다.

파병단계별 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부터 동명부대에서 파병기간 중 생산하여 육군본부 기록정보관리관 및 전쟁기념관으로 이관하여 수집된 기록들의 사례는 (표 13)과 같다.

제2동명부대가 활동을 하면서 생산한 『동명부대 감시령장 작전임무 수행 계획보고』를 통해서 동명부대의 주 임무가 분쟁예방과 치안 안정을 위한 레핑군 지원부대임을 알 수 있다.

<table>
<thead>
<tr>
<th>대명부대 파병기록물 수집 사례</th>
</tr>
</thead>
<tbody>
<tr>
<td><strong>영역</strong></td>
</tr>
<tr>
<td>---</td>
</tr>
<tr>
<td>유엔체계 평화유지군(UNIFIL) 중분문제감 보(06)</td>
</tr>
<tr>
<td>협조경찰 자료(06)</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r>
<td></td>
</tr>
</tbody>
</table>
고, 현지 주민들은 대상으로 컴퓨터 교실이나 한글 교실을 운영하고, 주민숙련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민사활동의 기록들이 다수 나타나 있다. 『현지인문계 기자간담회 개최 및 결과』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현지 홍보활동을 활발히 했음을 알 수 있으며, 실제 동명무대 16건의 경우 총 264회의 매체 홍보 결과가 나타났다. 국내에서 국방일보의 “신이 내린 신물 양지름 민군작전”, SBS의 “세계로 간 평화의 전사들 (국군의날 해외파병 다큐)” 등 국내매체 130여 회 보도와 더불어, 현지중앙매체 NNA 등에도 서로 기사와 같은 존재임을 부각시키는 제한 보도와 함께 각종 수료식, 준공식 등과 관련해 134회의 홍보 실적이 있었지만, 이와 같은 신문 기사들은 보존되고 있지 않았다. 즉 신문기사는 민간영역의 기록으로 여기며, 공공영역의 기록으로는 간주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의 다양성 측면에서 일상을 엽니 수도 있고 난색 사건에 대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신문기사들은 관련 기록과 함께 보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문서취의 기록 이외에도 부대기와 사전, UN 기관사 무사충장 청리사인이 UN대말 및 부대원중 등의 상징적인 박물류는 전쟁기념관(해외기념관)과 육군 기록정보 관리단에서 운영 중인 해외기념관 전시실에 각각 전시되어 있다. 소장기간 측면에서는 파병검토 단계에서의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최근oxide의 국방기록관까지 총 8개의 기관에 분산되어 소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다국적군 PKO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다산·동의부대는 테러타투대의 성격을 가지고 미국이 수도한 "항구적자유작전에 참여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전방 환경에서의 작전수행 능력구비, 세계평화의 국외선양 등에 지대한 공로를 세웠으며, '신이 내린 축복'으로 찬사를 받았던 부대이다. 한반도안이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문화의 핵심인 친근감과 정을 통한 문화중심적 활동은 분쟁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하는데 매우 급진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접근방식은 전문적 활동으로도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유지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 있다.

다산부대는 기술적착적이 사형소지의 완벽한 수행으로 동맹군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으며, 바그다드기지뿐만 아니라 아프간 전역에서 '황토지에서 기적을 일어내는 공병'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한국군의 우수성을 알렸다. 동의부대는 사랑이 담긴 인술의 실천(약 26만명)으로 현지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으며, 우수한 전료서비스와 친절함, 현지 여성 및 어린이 대상의 건강 관리 및 보건교육을 통한 위상상태 향상 등의 성과는 동맹군들 사이에서 보편적인 사례로 자주되고 있다. 이러한 다산·동의부대의 파병단계별 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부터 파병기간 중 생산한 기록물에 대해 육군본부 기록정보관리단 등 국방부 등에서 수집한 기록물들의 사례는 〈표 14〉와 같다.

'아프가니스탄 전투수행지침서', '아프가니스탄 민전투수행지침서' 등은 기록을 현지 아프가니스탄무장세력과의 교전이 발생하는 지역이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기록이다. 실제 아프가니스탄은 달레반 세력과의 교전이 수시로 발생했던 지역이었으며, 2009년도에는 자살폭탄 테러로 46명의 다국적군이 사망하는 등 구준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 윤장호
<table>
<thead>
<tr>
<th>영역</th>
<th>관련기록</th>
<th>내용</th>
<th>보존연한</th>
<th>기록유형</th>
<th>출처/소장처</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정책</td>
<td>청구적자유착산 대만동부대 참여문제 진도(195)</td>
<td>다양한 동부대의 파병 건 검토내용</td>
<td>영구</td>
<td>문서</td>
<td>대동방비시설/대동장비기록관</td>
</tr>
<tr>
<td></td>
<td>안보리결의(12.23)</td>
<td>유엔 아프가니스탄 임무단 임무기한 연장</td>
<td>문서</td>
<td>문서</td>
<td>국제경찰</td>
</tr>
<tr>
<td></td>
<td>국방위원회의 회의록(126회(1차)) / 대한민국 국회 124회 국회 회의록(상임</td>
<td>예산 동의안 및 관련연정 동의안 등 포함</td>
<td>영구</td>
<td>문서</td>
<td>국회/국회기록보존소</td>
</tr>
<tr>
<td></td>
<td>위원회, 2006.12.1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해외파병과 대해파병기 전용 동의방(“국</td>
<td>아프지 갑 파병국민부대 참여 확인과 관련</td>
<td>영구</td>
<td>문서</td>
<td>국방부/ 국방부기록관</td>
</tr>
<tr>
<td></td>
<td>회국회동의가결원안”(13.2.1)</td>
<td>아프지 갑 파병국민부대 참여 확인</td>
<td>문서</td>
<td>문서</td>
<td></td>
</tr>
<tr>
<td></td>
<td></td>
<td>(13.2.1)</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성함 대장의 관리명부(19.6.15)</td>
<td>성함동의방 국회의사당 첨부 상황 관련</td>
<td>영구</td>
<td>문서</td>
<td>해외파병과/</td>
</tr>
<tr>
<td></td>
<td></td>
<td>(19.6.15)</td>
<td></td>
<td>문서</td>
<td>참합기록관</td>
</tr>
<tr>
<td>파병간</td>
<td>대만 5군/동의 7군 구단개편계획</td>
<td>신안대, 본디 새단계 개편</td>
<td>3년</td>
<td>문서</td>
<td>파병부대/</td>
</tr>
<tr>
<td></td>
<td>CTTF-76 사령부 / 바그다드지구 규정</td>
<td>사령부 및 바그다드지구에서 적용하는 기본 규정임</td>
<td>10년</td>
<td>문서</td>
<td>(동의/대만)</td>
</tr>
<tr>
<td></td>
<td>아프가니스탄사회활동조교(206)</td>
<td>대시활동 주간단위 보고(합참)</td>
<td>3년</td>
<td>문서</td>
<td>기록정보/</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관련원</td>
</tr>
<tr>
<td></td>
<td>파병간 주간단위 보고(206)</td>
<td>아프가니스탄 주간단위 보고(합참)</td>
<td>3년</td>
<td>문서</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의료진료활동(1988.9.29)</td>
<td>의료진료 관련을 위한 보도(합참)</td>
<td>3년</td>
<td>문서</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외무관사 업무보고(1985.11.1)</td>
<td>외부인 외무관사 업무보고</td>
<td>3년</td>
<td>문서</td>
<td>파병부대/</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기록정보/</td>
</tr>
<tr>
<td></td>
<td>아프가니스탄 군사생활소개문(1986.11.1)</td>
<td>군사생활소개</td>
<td>10년</td>
<td>문서</td>
<td>관련원</td>
</tr>
<tr>
<td></td>
<td>아프가니스탄 전투수류지침(1986.11.1)</td>
<td>아프가니스탄 전투수류지침</td>
<td>10년</td>
<td>문서</td>
<td>파병부대/</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기록정보/</td>
</tr>
<tr>
<td></td>
<td>아프가니스탄 직업/기술교육지침(1986.11.1)</td>
<td>아프가니스탄 직업/기술교육지침</td>
<td>10년</td>
<td>문서</td>
<td>관련원</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전쟁조세 해부 전쟁조사의 결론(1987)</td>
<td>고용노동의 미군 “Camp Yoon” 주무관 전력(합참)의 결론</td>
<td>3년</td>
<td>문서</td>
<td>계획정보/</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국방부기록 관</td>
</tr>
<tr>
<td></td>
<td>고 용역조세해부 전쟁조사보고(207)</td>
<td>자원 및 장비 결과 보고</td>
<td>영구</td>
<td>문서</td>
<td></td>
</tr>
<tr>
<td></td>
<td>아프가니스탄 군사활동과 용역조사 해부조사보고(207.3.3)</td>
<td>고 용역조사 관련 내용</td>
<td>영구</td>
<td>문서</td>
<td>군사정부,</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국방부기록 관</td>
</tr>
<tr>
<td>파병/복귀</td>
<td>청구적자유착산 추진결과</td>
<td>대만·동부대의 귀국보고서</td>
<td>문서</td>
<td>PKO/</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국방부기록 관</td>
<td></td>
</tr>
<tr>
<td></td>
<td>대만·동부대 사전(195)</td>
<td>대만·동부대 활동 사전</td>
<td>영구</td>
<td>문서</td>
<td>군사정부/</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국방부기록 관</td>
</tr>
<tr>
<td></td>
<td>해외공부의 사전 질병 발생결과보고</td>
<td>아프가니스탄 대만·동부대 파병(02.07) 활동당 관련 사전질병 발생결과 보고</td>
<td>영구</td>
<td>문서</td>
<td>군사정부/</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국방부기록 관</td>
</tr>
</tbody>
</table>

한국군 해외파병 관련 국내 기록의 현황과 기록관리 실태

하사 매장장 보고서는 2007년 북한청동리에서 일한 고귀한 희생이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기록이며,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비서실의 사건 관련 최초보고, 국방부의 장학의사 및 성금지원 계획, 공보조직 등의 기록을 확인을 통해 당시 발생한 사건의 개요는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방 정책홍보팀에서 생산한 ‘아프지 갑 독발리리’가 용장호하사 관련 조선관관리 문서는 비공개
문서로 내용 화인이 불가능하여 사건과 관련된 핵심 쟁점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다.

미군에 의해 건립된 주무관인 “Camp Yoon”의 현장들과 관련된 세부내용, 사건 당시 동맹군들의 열렬한 추모 행렬 및 배려와 관련된 몇 이야기, 사건 현장을 목격한 동료들이 바라본 사건현장의 모습 및 반응, 가족들과 국내 시민 사회의 반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건의 희약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들은 확인할 수 없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기록 조사 과정에서 "괴뢰한국인지원계획"을 통해서 아프간 괴뢰한국인 사건 발생 당시 동부도(해병대 경계부대)가 구출작전에 지원하였습니다는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비공개 성격으로 상세내용의 파악은 어려웠다.

다산·동부대는 파병당시 미군주도의 동맹군의 파병의 성격이었던 이라크 자이툰부대와 함께 시민들의 반대가 심했던 파병이었으며, 시민단체의 경우 라이트코리아, 자유개척자연 단 등 보수시민단체는 아프간 파견 시 오히려 증폭을 요구하는 반면, 참여연대, 평화화항군인 회 등의 진보 단체들은 아프간 파병에 대한 반 대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한편, 경향 등 전보 언론들은 국민적 동의가 없는 전투주의 파병을 비판하며 미국 중심의 파병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파병회를 요구하였 다. 이에 국방부는 예상되는 정점에 대한 파병 목적 및 취지(26)를 부각한 국정브리핑 10회, 국 방에제 보도자료 33건, 조선일보 등 기타 언론 보도 34회 등을 실시하여 파병의 당위성을 홍보하기도 했다. 파병과 관련한 반대안, 시민사회 입장에서의 파병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지속되며,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장과 논의에 대한 기록은 문서의 주요한 극소수로, 그마저도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어 내용 파악이 제한되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의한 인문학적, 사회, 경제 등의 민간평의에 다양한 기록을 함께 보존한다면 공공인 영역의 기록과 함께 다면화된 측면에서의 담대한 파병상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파병기록은 보고서 투자 위주의 공적행위 기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군과의 교류 행사나 현지 주민 대상의 민자간 활동 등, 다국적군과 함께 동일한 주문지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파병부대원들의 모습 등과 관련된 구술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다. 다산·동부대는 앞서 설명한 동맹부대나 자이툰부대 등과는 달리 동일한 기지 내에서 20여 개국의 가장 많은 동맹 군들이 함께 생활했던 부대이기도 하다. 즉 기 지 내에서 동맹국들과 고고 자본 문화교류가 활 발했을 것이며, 파병부대의 일상생활 측면에서도 동맹국들과 향명적인 조화나 지원 등에서 적절한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동맹국 부대들의 생활 환경이나 지원 수준, 문화교류를 통해 파견한 외국군의 성향이나 문화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들은 향후 우리 군이 새로운 다국적군 파병을 계획할 때 소중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파병부대원들의 일상적인 측면에서는 일주 뿐만 아니라 여가, 취미 활동, 경영들의 활 동, 생활 등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기록이

(26) 체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글로벌 기여는 불가하며, 재정지원으로도 글로벌 책임은 충분히 수행할 가능, 높아, 아프간 파병은 미국에 대한 우리의 시대주의 외교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본위로 파병 형태로 수행하는 것이며, 한미동맹이 글로벌 차원으로 발전하는데 따른 결정임을 강조하였다.
생산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의료기록과 관련해서는 동의부대의 경우 124,100건의 의무기록이 보존되고 있으며, 상당히 활발한 의료자원활용을 겪쳤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27) 국립보건연구원 제1761호 「군 의무기록 관리 환경」(2015.1.2. 개정) 제19조(의무기록의 보관, 보존 및 이관)에서는 해외파병 부대 의무기록 중 현지에 아닌 환자, 즉 예비역 아닌 민간인, 해외파병부대에서 전달한 현지인 및 외국인 등과 관련된 의무기록의 보존방법은 현지와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의부대의 의무기록 보존환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지인과 관련된 의무기록만 상당히 많은 편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지인 의무기록들은 모두 법령에 의해 영구기록으로 분류되어 보존된다. 그러나 생산되는 기록의 양에 비해 활용은 지극히 낮아 육군본부 기록정보관리단 보존활용과에서는 의무기록의 활용 및 보존관리 기준 정립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임을 확인하였다.

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해외파병 관련 기록이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해외파병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실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설명책임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만 하며,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비교함으로써 인과관계와 경제적 맥락을 밝혀낼 수 있어야만 한다(오명진, 2012).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외파병 기록의 기관별 산재된 보존, 검색 및 열람의 한계, 특정 파병 건에 대한 경력수첩의 부재 등으로 인해 해외파병 기록은 설명책임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에는 부족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고, 맥락을 밝혀내기 어렵다는 등 기록관리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들이 심화되었다. 앞서 살펴본 해외파병 단계별 생산기록 현황과 주관 기관별 소장기록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그리고 현황 조사결과에서 필요한 개선사항을 기초로 정리한 해외파병 기록물 관리상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물에 대한 열람 및 검색 서비스의 이용이 실제로 제한되고 있다. 기록물관리의 4대 원칙으로 둔보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이 강조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4대 원칙들은 기본적으로는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을 위한 원칙이기는 하지만 비전자적 형태의 기록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들이다. 또한 현황에서

5. 맥음말

기록관리에 대한 국제 표준 ISO1548928)에서는 기록이 내용, 맥락, 구조를 가지며, 인간 기억의 확장으로서 또는 설명책임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해외파병 관련 기록이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해외파병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실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설명책임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만 하고,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비교함으로써 인과관계와 경제적 맥락을 밝혀낼 수 있어야만 한다(오명진, 2012).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외파병 기록의 기관별 산재된 보존, 검색 및 열람의 한계, 특정 파병 건에 대한 경력수첩의 부재 등으로 인해 해외파병 기록은 설명책임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에는 부족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고, 맥락을 밝혀내기 어렵다는 등 기록관리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들이 심화되었다. 앞서 살펴본 해외파병 단계별 생산기록 현황과 주관 기관별 소장기록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그리고 현황 조사결과에서 필요한 개선사항을 기초로 정리한 해외파병 기록물 관리상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물에 대한 열람 및 검색 서비스의 이용이 실제로 제한되고 있다. 기록물관리의 4대 원칙으로 둔보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이 강조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4대 원칙들은 기본적으로는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을 위한 원칙이기는 하지만 비전자적 형태의 기록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들이다. 또한 현황에서

27) 육군본부 기록관리정보단 보존활용과 법률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임(2015.10.7)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들의 95% 이상이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되고 있는 기록물이기 때문에, 4대 원칙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이용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후대에 이루어질 다양한 연구와 교육, 예술 창작활동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가기 위해 해외파생 기록에 대한 이용가능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해외파생 기록들은 관련 기관으로 이관되어지고 난 이후 검색 및 열람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이 많았으며, 목록만 공개될 뿐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로 설정된 자료들이 너무 많았다.

첫째, 해외파생 기록은 거의 대부분 공직영역에 국한된 기록으로, 사회적 기록으로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기록은 집단적 기억의 표상이기에 집단의 경험과 임상에 대한 기억의 소화를 통해서 사회적 기록으로서의 기록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존되고 있는 해외파생 기록은 대다수 업무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공문서 위주의 공적 행위 프레임에 국한되어 있고 복잡성과의 임상이나 경험을 담아내는 기록은 거의 없어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단계의 파생 활동상태를 제대로 조명하거나 파생과정의 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셋째, 해외파생 기록은 기록관리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파생부재 이후 이관 및 보존에 대한 통계 또한 미흡하다. 사회적·의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위상과 결부되어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해외파생은 분명 후대에 온전하게 전달되어야 하는 기록들로 다수 생산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런 측면에서 파생활동 수행 간 생산되는 각종 기록들에 대한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중요성의 인식 하에 육군규정153『기록물관리 및 관리요원』 제16조③항에도 파생 관리 소양교육 및 관련자료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파생관리 과정에서 기록물 생산, 관리, 이관 및 보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전문적 교육도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사전 교육을 받은 인원 또는 기록 관리 전문요원이라는 기록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기록, 물론 현재에는 전자기록으로 생산된 기록들은 일정한 절차에 의거 자동으로 이관되기도 하지만 그 외에 생산되는 각종 문서 기록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나 도예 없이 업무담당자의 실태적인 판단으로 이관 및 보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넷째, 단일 파생기록과 관련된 기록들과 절차선(시리즈)화할 수 있는 기록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기록이 기록관리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연관된 기록들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파생기록관리체계는

다원화된 업무형태로 파병이 추진되면서 특정
파병과 관련된 기록들이 다수의 유관 기관으로
분산 이관되고 보존됨으로 인해 맥락을 유지하
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동일 사전별로
맥락을 같이 하는 기록들이 시리즈의 형태로
 묶어서 수집, 이관, 보존되는 체계가 아니라 파
병의 성격 혹은 기록물의 성격 및 활용에 따라
각기 다른 기록으로 이관 및 보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다 특정 파병부대에 대한 기록을
단일 기관을 통해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
된다.

마지막으로 해외파병 기록은 의미 있는 기록
의 재생산을 위한 기록의 다양성과 풍부함이
부족하다. Elizabeth Shepherd와 Geoffrey, Y.
는 기록의 가치 활용성 측면에서 효율적인 업
무전형과 참고정보를 제공하는 업무활용성, 기
록의 생산자가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에
대한 감사기관이나 정책결정의 근거로 대내의
설명책임의무 지원과 마지막으로 그것을 넘어
서는 가치가 기록이 담고 있는 데이터와 정보는
 각종 연구와 교육, 창작활동과 역사기술에 필
요한 자료와 근거를 제공하며 기록은 집단적
기억의 표상이며,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주
는 선물임을 강조한 바 있다(한국기록관리학
회, 2013). 또한 셀렌바그가 주장한 기록의 가치
 중 2차 가치 ‘증거 가치’ 측면에서도 해외파병
 관련 기록들의 활용내역을 증명하고, 후대에 기
관의 역사를 밝히고 동시에 파병진행들의 군사
외교적 문화활동으로서 한국군 해외파병의
 의미를 기억시키고 재조명하는데 이용될 수 있
어야 만 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군의 해외파
병 관련 기록은 분석과 응용을 통해 당대 사건
들의 숭격된 의미를 찾아내고 좀 더 의미있는
기록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다양성이 풍부함
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
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사회를 반응처럼 파병
을 추진하는 정부기관과의 논란에 있었던 생
명주소의 기록이 누락되었으나, 또는 국소수
(비공개) 기록으로 파병에 대한 전, 후 맥락
을 파악하기 어렵고, 공공기록의 프레임 위주
의 기록으로는 완전한 파병기록 할 수 없을 것
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해외파병
기록물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파병업무 혼란 및 기록관리 규정에 대한 명문
화된 기록물 관리방안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파병단계별로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들에 대해
 명확한 기록관리 업무를 정의하고, 각 단계별
로 어떠한 기록들이 반드시 생산되어야만 하는
지와 기록의 생산절차 및 유행 등을 명문화해
야만 할 것이며, 주기적인 실태 점검활동도 실
시해야만 한다. 또한 파병을 준비하는 과정에
서 기록물 관리와 전달할 전문인력을 반드시
 편제에 반영하고, 해당 인력들에 대해서는 파
병 전 교육을 실시해야만 한다. 파병에서 복귀
한 이후에는 기록물 이관 및 보존된 문화재된
절차와 정책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특정 파병
군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물 간의 맥락과 그 소
재의 파악이 필요하도록 기록관리기관에서는
기록의 이관과 행정하여 기록가이드를 작성하
여 제공해야만 할 것이다. 파병업무를 추진하
는 기관들 간에도 협력체를 구성하여 파병의
성격에 따라 기관별로 재판에 있는 기록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활용성을 보장하면서
당대의 파병활동상에 대한 파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기록가이드 작성에 적극 협조해야할 힘.
또한 수집된 기록들은 기관별 검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하여 일원화된 체계에 의해 다양한 기록물 소장 기관을 연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기록물 접근 통합 검색과 기록물 통합 활용을 통해 반면에 검색하여 확인하는 간적으로 검색기반 시스템의 제공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기록학자가 사전의에서는 특정한 위치, 주제, 사건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 기록 생산자, 보존 기록관, 기록 이용자의 상호 협력을 통해 선별하여 수집하는 평가, 선별 방법론(30)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큐멘테이션은 개인이나 조직, 사회활동, 사건 등의 전과 변화를 재현하거나 증가할 수 있도록 기록을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생산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즉 기록화 전략이란 선별된 하나의 주제 또는 기록에 따라 여러 기관이 해당 주제의 기록을 수집하는 전략이며, 해외과외 기록자에 대한 적극적인이고 다양화된 기록수집을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만 한다. 공적인 프레임에 국한된 기록화에서 벗어나 신문기자, 저널, 다큐멘터리, 웹사이트 등의 영역별 주체의 기록을 간접적으로 보완하고 종합된 전략으로도 보완하는 기록화를 통해 기록이 생산된 당시의 사회적 이슈와 시민사회 입장 등도 반영할 수 있는 기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한 것이다.

또한 기록 속에 수록되지 못한 사건에 대한 맥락 및 인과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기록의 적극적인 생산과 기록화전략의 풀 속에서 제시되고 진행되어야하며, 기록의 종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건을 위해 일상 이야기를 촉발에서의 기록화도 고려해봐야 한다. 풍건(2003)은 "기록을 통해 사회를 표현하는다는 사명을 가지고, 보다 많은 원형으로서의 기록을 남김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당대의 사회적 기록을 허물어낼 수 있는 기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좋 습수를 살고 있는 사람들과 사회적 기록을 기록으로 남기고 후세에 전송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적 책임 중 하나"라고 강조한 바 있다. 파병정령의 다양한 경험적 기록들에 대한 기록화 과정은 공적인 프레임에 국한된 기록이 이에 노래진 다양한 활동들에 대

한 성과를 제한하고 재조명할 수 있게 해주며
공격기록의 결락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공격 프레임의 기록화와 함께 민간영역의 기록을 포함한 일상 아카이브 측면에서의 기록화도 기록화전략의 틀 속에 포함시켜 계획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현

오정진 (2012). 동시대 역사적 사건의 기록화 전략,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 전공.
오재환 (2011). 육군 해외과방부대 기록물 활용에 관한 연구, 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 전공.
정효현 (2003a), 해외과방 부대원의 스트레스 변화에 관한 연구 - 상륙수부대 제7진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46(1), 93-126.
정효현 (2003b), 아프가니스탄 과방 한국군의 과방조건 인식과 스트레스 반응과의 상관성 연구: 동부 제3진·탄잡부대 제1진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회보, 7(3), 99-126.


Han, Tai Keun (2010). Research on field and job stress of soldiers deployed overseas and stress-response.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Myongji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im, Jung Du (2011). A comparative study of determinants of Republic of Korea’s military foreign policy: By focusing on the cases of overseas troop deployment.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yungnam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al Diplomacy.

Kim, So Young (2008). Management system for historical records of the institute of Army history: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s and role as collecting archiv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Gungju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ves Management.


Lee, Byung-Lock (2015). A study of determinants of ROK’s military dispatch to the wars in
Vietnam and Iraq: Focusing on Rosenau theory,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yungnam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al Diplomacy.

Lee, Sang-uk (2016). A study of influence estimate of overseas deployment determinants in ROK: Focusing on Rosenau pre-theory,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yungnam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al Diplomacy.


Oh, Myung-Jin (2012). A study on documentation strategies for contemporary historical events,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Record Management.